광주상수도본부 시설·조직 혁신 나선다

2월 단수 사태 원인 규명…기계적 결함에 일부 관리 부실 지적

노후 시설물 체계적 관리, 인력·조직 등 5개 분야 개선안 마련

지난 2월 대규모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 등 정수장 사고를 겪은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수도요금 현실화, 관리 강화 대책 등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11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덕남 정수장 사고원인 규명·재발 방지 전담팀'과 '상수도 조직·시설 혁신 전담팀' 등 2개의 태스크포스 가동을 완료했다.

오흥석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재발 방지 전담팀은 지난 2월 덕남 정수장 사고 원인으로 시설 노후화 등 기계적 요인, 점검 소홀 등 관리적 요인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담팀은 부식으로 약해진 볼트가 과도한 힘에 파손되고, 기어 구동축이 이탈하면서 항상 열려 있어야 하는 밸브가 닫혀버렸다고 진단했다.

작동 점검 없이 육안으로만 이뤄진 점검 시스템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상수도본부는 사고 발생 밸브를 철거하고 정수장 밖 하류부에 통합 유출밸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연 1회 작동 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매뉴얼도 개선했다.

송창수 호남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혁신 전담팀은 위기관리 대응체계 확립, 노후 시설물 체계적 유지·관리, 인력·조직 전문성 강화, 상수도 공급 체계·제도 개선, 시민 서비스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 등 5개 분야, 21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상수도본부는 현장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식용수 사고 매뉴얼을 개정하고 5년간 밸브 5만 7518개를 단계적으로 전수조사한다.

174㎞에 달하는 노후 상수도관 정비 예산(997억원) 마련을 위해 환경부 등에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조직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정원 내 직렬 전환과 관망 관리사 등 자격증 취득 인원 채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상수도본부는 특히 현재 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판매 판매 단가가 77%에 그치고, 앞으로 5년간 1434억원 투자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도 요금 현실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 수도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t당 530원으로 다른 광역시보다 낮은 수준이며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상수도본부는 설명했다.

상수도본부는 하반기 중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 결과에 따라 내년 요금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2015~2017년 점진적으로 수도요금이 오른 뒤 동결 유지되고 있다.

이정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덕남정수장 유출밸브 사고로 시민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상수도정책과 현장의 문제점을 재점검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 동반성장 협약

광주·전남 공동발전 등 협력

광주시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8일 광주도시공사 회의실에서 '광주·전남의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양 공사는 협약에 따라 조만간 실무단 구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정보의 공유와 전문 인력 교류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및 공공구매 활성화 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도시공사 정민곤 사장은 "전남개발공사와는 많은 교류를 하는 이웃사촌"이라며 "두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상생의 동반자로서 공동사업 발굴 등을 통해 광주·전남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은 "광주와 전남은 뗄 수 없는 동반자적 관계이자 최고의 파트너"라면서 "두 지역의 대표 공기업 간의 사업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통해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 견인 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국서 몰려든 인재들 광주서 AI 전문가 꿈 이룬다

330명 AI사관학교 4기 입교식

7개월간 이론·실습 교육

기업 연계 프로젝트도 진행

전국 각지에서 광주로 모여든 인공지능사관학교 교육생 330명이 미래 AI 전문가를 꿈꾸며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지난 7일 광주 동구 대성학원 교육장에서 AI사관학교 4기 입교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이날 입교식에는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정책국장, 차준섭 스마트인재개발원장, 4기 교육생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입교식은 교육생들의 AI 사관학교 지원 동기와 AI 전문 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다짐 및 포부 발표, 입학증서 및 생도증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4기 교육은 1차 서류 심사와 3개월간 온라인 프리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 선정한 330명을 대상으로 7개월간 인공지능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과 기업 연계 프로젝트 과정으로 운영한다. 교육 내용은 3개 트랙 (AI 모델링, AI 기반 서비스, AI 플랫폼 및 인프라)으로 구성한다.

AI 교육과 기업 연계 프로젝트 교육을 통해 AI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 AI 기술을 학습하고, 교육 과정 중 교과별 역량평가를 실시해 교육생 역량에 맞는 자기주도학습 교육(보충학습, 온라인 콘텐츠, 동아리·스터디·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7일 광주 동구 대성학원 교육장에서 열린 인공지능사관학교 4기 입교식에 참석한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과 학생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카카오 개발자, 현대모비스 SW(소프트웨어)개발자가 특강 강사로 참여해 AI 학습법 코칭, 개발 경험과 노하우 공유, 진로·커리어 설계 상담 등 AI 실무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또 교과별 역량평가 우수 교육생을 대상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를 참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교육생들에게는 개인별 노트북 제공 등 교육 기자재와 함께 교통비, 중식비, 기숙사비, 교재 및 학습 콘텐츠 지원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이번 4기 교육은 AI 기초 이론부터 AI 기업 현장 실무를 쌓을 수 있는 프로젝트까지 탄탄한 교육과정과 교육생 역량에 맞는 자기주도학습 교육, 우수 교육생 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며 "앞으로 7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곧바로 실무현장에 투입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사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AI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외국인 유학생 4000명 첫 실태조사

16일까지 온라인 설문

광주시가 지역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생활만족도 등을 살피는 첫 실태조사를 벌인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입학 자원을 발굴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

성별, 나이, 출신국, 대학 지원경로 등 광주 유학 과정, 유학 생활 만족도, 진로·취업 관련 사항, 광주 생활 만족도와 정책 수요 등을 온라인으로 조사하게 된다. 광주에서 대학 학부, 대학원 과정을 이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4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광주시는 유학생 적응, 지역 정주를 돕고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하는 방안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조사 결과를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 형식으로 '광주시 외국인유학생 실태조사' 온라인 설문조사지 QR코드 또는 인터넷주소(https://ko.research.net/r/foreign_ST)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수빈 광주시 인재육성과장은 "올해 첫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0월 4~7일 광주서 세계 인권도시포럼 개최

빈곤과 불평등 문제 논의

광주시는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세계 인권 도시포럼'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포럼에는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네스코 본부가 3년 연속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한다. 올해 주제는 국제기구, 국내외 전문가,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로 선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후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첨단 디지털 기술 확산 등으로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진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논의한다. 광주시는 공모를 통해 여성, 장애, 가족, 이주민, 청년, 지속가능개발 목표, 어린이·청소년, 거주권 등 8개 분야별 주관기관을 선정해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계림동 쪽방촌 현장 간담회, 청년과 사회적 이슈 토론회, 이주민 무료 진료 활동 등 주제 회의와 연계된 프로그램도 마련해 시민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윤건열 광주시 민주인권과장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진 빈곤과 불평등으로 인한 인권 문제를 다양한 국제도시 사례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도시 간 연대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며 "세계인권도시포럼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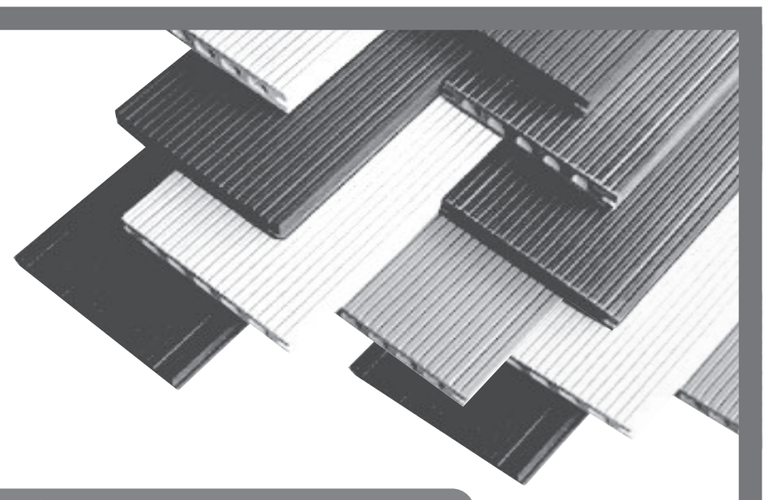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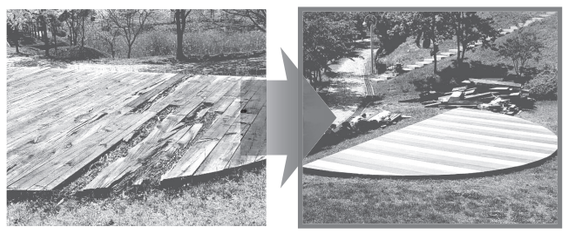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